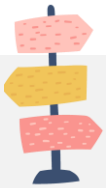

2022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아세안 권역

베트남에서 만난 역사의 변곡점

방유민

베트남의 정식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로 북한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이한 점은 사회주의의 대척점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호의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북한과 교류하며 북한 대사관이 있다는 점, 그러면서 미국과 좋은 관계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리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곧바로 베트남 여행을 계획했다.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여행 준비를 했던 것은 한 번쯤은 동남아에 가보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나는 이전부터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현장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다. 살면서 크고 작은 기회가 있었지만, 종종 관심이 없거나 시기를 놓치는 등의 이유로 큰 변화의 현장에 있어 보지 못했던 탓에 그 갈증이 심해졌다. 그러던 중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어가고 더 나아가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담의 결과가 통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 회담이 내 갈증을 해소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내가 여행을 계획하던 시기는 베트남에서의 구체적인 회담 장소가 정해지기 전이었고, 나는 회담 장소가 확정되기 전 모든 여행준비를 마쳐야 한다 생각했다. 당시 북미정상회담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이었고, 많은 국내외 기사들을 보니 타이밍을 놓치면 비행기 표는 물론 숙소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외신은 국제행사 개최 경험, 미군기지 등을 이유로 다낭을 유력 회담 장소로 언급했으나 우리는 북한의 이례적인 베트남 방문, 하노이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 좋은 치안 등을 이유로 하노이에 숙소를 구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의 예상대로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되었다.

나와 친구들은 2월 말 겨울, 동남아시아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하노이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여행 전 가장 큰 우려는 언어와 치안 문제였다. 다행히 북미정상회담의 영향인지 공항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영어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치안도 걱정했던 것보다 좋다고 느꼈다. 소매치기, 절도가 많다고 걱정했는데 막상 지내보니 오히려 유럽보다 치안이 더 괜찮다고 느꼈다.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의 질서를 느꼈던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안심하고 하노이를 즐길 수 있었다.

다만 첫날 베트남의 유명한 음식인 반미를 사 먹을

베트남에서 처음 사 먹었던 반미

때 일인데, 일행이 반미를 사고 돈을 내며 잔돈을 요구했을 때 현지 물가를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을 말하며 잔돈을 주지 않았고 바가지를 씌우려 하는 모습에서 당황스러움과 불쾌함을 느꼈었다. 다행히 일행을 도와 잘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그 때문에 남은 여행 기간 동안 물건을 구매할 때 부르는 가격을 그대로 믿지 않게 되었고 처음부터 절반 이상 깎고 흥정하면서 물건을 사게 되었다.

그 외에도 길거리의 수많은 오토바이로 인한 매연과 소음 문제, 길거리 음식의 위생 문제는 종종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나중엔 그런 것들을 포함한 게 베트남 문화라 생각해 그냥 즐겼던 것 같다.

베트남을 다니며 가장 좋았던 점은 단연코 값싼 물가이다. 호안끼엠은 호수이자 식당, 관광지, 야시장이 모두 근처에 있는 하노이 관광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호수 근처의 호텔 예약은 평균 4만원 정도로 매우 저렴했고 우리가 묵었던 5성급 호텔도 20만원 안 되는 가격에 값싸게 예약할 수 있었다.

여행 중에는 주로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랩'이라는 택시 서비스를 이용했다. 처음 택시를 이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라 차가 많이 밀려 택시비가 많이 나올까 걱정했던 예상과는 다르게 큰 비용이 나오지 않아 부담 없었고, 그 덕분에 여행 내내 택시를 이용하며 편하게 이동했다.

베트남의 가장 대중적인 택시서비스 '그랩'

음식 또한 매우 저렴했는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방문 당시 방문했던 쌀국수집은 국수 가격이 겨우 3,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다. 현지 음식이지만 유명한 집이란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3분의 1이라는 가격이라는 것이 대단했고 맛도 좋았다. 또 다른 날에는 롯데호텔 65층의 탑 오브 하노이라는 루프톱 바에서 인당 하나 이상의 음식과 와인 등을 시켰는데 10만 원이 안 나왔던 것에 놀라며 베트남 여행 중 식비 걱정은 무의미하다고 느꼈고 부담 없이 베트남을 즐길 수 있었다.

베트남 하노이 여행 중 운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숙박했던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의 맞은편을 숙소로 구한 것이 대표적이었다. 체크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카메라를 든 외국인 동승객이 있었는데 일본어로 본인들 숙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객실 보이는 위치라는 등의 대화를 들었다. 그때 그들이 기자라는 것과 우리 숙소 바로 앞에 김정은 위원장 숙소가 있다는 걸 처음 알고 신기해 했었다.

김정은 위원장을 보는 건 쉽지 않았지만 이른 아침 산책하러 나갔을 때 방송국 카메라를 포함한 수십 대의 큰 카메라가 모여 있는 장면, 수많은 기자가 숙소 앞에서 기다리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거기서 가장 낯설었던 것은 전역한 육군 예비군으로서 마주한 갈색 군복의 북한 군인 모습이었다. 한참을 그 현장에 서서 구경하다가 간단히 쌀국수를 먹기 위해 가게 앞 노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는 기자가 다가와 취재를 요청해서 인터뷰도 했는데 한국인이라고 말하니까 놀라며 묻는 모습이 재밌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하루는 관광하고 난 후 저녁 시간이었는데 큰 사거리에 차량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 관광 중 통제는 종종 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하는 건 처음 봐 서 있던 백발 백인 아저씨한테 물어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갈 예정이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처럼 도로 앞에서 기다렸고, 그렇게 한 시간 이상을 기다린 후에 경찰 오토바이와 수십 대의 차량이 지나간 후 그 유명한 캐딜락 방탄 차량이 모습을 보였다. 첫 번째 캐딜락이 지나가고 똑같은 차량이 한 번 더 지나갈 때 바로 트럼프가 탄 차량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천천히 서행하면서 뒷자리 차량 실내조명을 켜고 씨익 웃는 모습이 누가 보아도 트럼프였다.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을 보고 따라 웃었는데 그러면서도 주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트럼프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인이자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조금은 실감이 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회담으로 두 정상이 모이는 것을 정치적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이벤트라 생각해 즐기는 분위기였다.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 분위기 덕분에 나도 외국인들과 쉽게 떠들고 즐겼던 것 같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방문 당시 묵었던 멜리아 호텔.
(숙소 방 안에서 촬영)

첫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행지였던 베트남을 둘러보고 나서 느낀 것은 우리와 다른, 그들 문화권의 특징과 개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부 관광지에서 복장 규정이나 출입 통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약간의 폐쇄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다른 문화를 이야기할 때 거부감이 덜한 것, 평소 모습에서 느낄 수 있던 느긋한 성격 등을 볼 수 있어서 많은 것을 경험했던 시간이었다. 비록 북미정상회담이 극적 타결이 되고 통일되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가까이 있던 긴장감, 트럼프를 실제로 보고 느꼈던 감정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없던 감정이라고 생각해 너무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